

## 판소리에는 살아 있는 말이 있어요

정병헌

전 숙명여자대학교 교수

### 1. 판소리 들어가기

판소리를 만들고 육성하여 국민 예술로 승화시킨 집단은 천민으로서의 삶을 강요당했던 광대들이었다. 예술을 천직으로 살았지만 그들의 삶은 고달픈 수밖에 없었다. 그들이 꿈꾸는 세상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당연히 그들이 향유하던 판소리 속에 그들의 꿈이 도사려 있다.

판소리는 국악에서 민속악으로 분류되고 있다. 민속악이란 정악, 또는 아악과 대립되는 개념으로 민중의 삶 속에서 나타나고 성장한 음악을 가리킨다. 그래서 높이 모셔 두었다가 특정한 행사가 있을 때 꺼내어 공연하거나, 또는 양반들의 유희이나 여가를 위하여 공연되는 것이 아니었다. 민요나 무가가 그렇듯이 판소리는 살아 숨 쉬는 예술이었던 것이다.

판소리는 말과 노래로 하나의 이야기를 연행하는 예술이다. 따라서 그 출발은 춘향이나 심청, 그리고 흥부와 같이 민중들에게 널리 알려진 이야기를 바탕으로 이루어졌을 것이다. 이야기는 시작과 끝이 있어 하나의 완결을 이루게 되어 있다. 그런데 이 이야기의 한 부분을 노래로 부르면서 이야기의 모습이 달라졌다. 노래가 들어가 화학적으로 결합하면서 이야기와는 다른 판소리가 나타나게 된 것이다.

그래서 이야기는 중간에 푼 자르면서 끝낼 수 없지만, 판소리는 어느 한 부분을 불러도 판소리라고 했던 것이다. 오히려 판소리 전체를 부르는 것은 긴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어나 연행되었다. 그렇게 판소리라는 새로운 예술 형태가 나타났다. 그리고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집단이 바로 천민들인 광대들이었고, 이들은 이야기꾼과 구별되는 가객으로 대접받게 되었다.

판소리로 불린 작품은 본래 열두 편이 있었다고 하는데, 조선 후기 고창에서 판소리를 다듬고 연창자들을 교육시켰던 신재효는 이 중에서 여섯 작품에 자신이 생각하는 판소리의 지향을 반영하여 개작하였다. 현재까지도 판소리로 계속 불리는 것은 이 여섯 작품 중 <춘향가>, <심청가>, <홍보가>, <수궁가>, <적벽가>의 다섯 작품이고, 나머지 한 작품인 <변강쇠가>는 창을 잃고 사설만이 남아 있다. 본래의 판소리 작품 열두 편 중 나머지 여섯 작품은 판소리의 모습을 잃고 소설본으로 남아 <변강쇠가>와 함께 후대에 복원하여 부르기도 하였다.

판소리 발생 초기에는 경기도와 충청도를 중심으로 많은 명창들이 등장하여 활약하였는데, 뒤에 가왕으로 불리는 송흥록이 나타나면서 그 전승의 중심이 호남으로 옮겨졌다. 그래서 지역이나 전승 관계, 또는 흐름 등에 따라 판소리의 유파를 동편제와 서편제, 중고제 등으로 분류하기도 하지만, 이는 음악의 문제일 뿐 사설에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판소리가 현재에도 활발하게 전승되고 있는 까닭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이유로 가장 먼저 꼽을 수 있는 것은 판소리가 가지고 있는 왕성한 생명력 때문일 것이다. 판소리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예술 형태는 여러 가지가 있다. 음악만의 예술화를 도모한 것이 산조이고, 사설의 문학적 형상화로 나아간 것이 판소리계 소설이다. 또한 극적인 양식으로 변화한 것이 창극이나 마당극이라고 할 수 있다. 6·25 전쟁을 전후로 하여

북으로 넘어간 판소리 명창들은 그곳에서 <춘향전>과 같은 민족 가극이나 <피바다>와 같은 혁명 가극의 완성에 판소리의 자산을 활용하였다.

그러나 판소리 명창이 이미 잘 알려져 있는 뻔한 이야기를 이렇게 저렇게 전달하는 현장에서, 같이 울고 또 같이 웃는 것은 그 사설이 가지고 있는 강한 흡인력 때문일 것이다. 이제 그 판소리 사설이 가지고 있는 문학적 함의 속으로 들어가 보자.

## 2. 인간의 평등을 향한 길

최근 인기리에 상영되고 있는 영화 <신과 함께>에서 염라대왕의 전생은 대장군이였다. 주 인물들인 저승사자들도 모두 혁혁한 지위를 누리던 사람들이었고, 장군을 따라 열심히 전투하다 이름도 없이 사라져 간 병졸들이 설 자리는 그 어디에도 없다. 여기에서만 그렇겠는가? 우리는 대단한 일을 했다 하여 포상이나 칭찬을 받는 경우 덕담으로 “전생에 나라를 구했나 보다.”라는 말을 익숙하게 한다. 이 또한 아무리 전란에 참여하여 자신의 목숨을 바쳤다 해도 이름마저 남기지 못한 채 사라져 간 수많은 노비나 천민들은 하찮은 존재여서 감히 작품 속의 주인공이 될 수 없다는 뿌리 깊은 인식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모든 영웅 소설의 주인공이 하늘에서 난다 긴다 하는 대단한 직위에 있다가 잠깐 죄를 지어 인간계에 귀양 온 사람들로 이루어진 것도 이러한 심리의 또 다른 표현일 것이다.

그나마 《금오신화》의 <남염부주지>는 경주에 사는 박생이 염라대왕과 토론을 하고, 후일 염라대왕이 된다는 설정을 하고 있어 대단한 파격이라고 할 수 있다. 오죽하면 <설공찬전>을 지은 채수는 그 작품에서 전생의 왕이 지옥에서 죄를 받고 있다는 설정을 하였다는 이유로 혹독한 곤욕을 치렀겠는가. 양반의 자식이자 천한 노비의 자식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고난의 삶이 앞에 놓여 있었던 홍길동은 그래서 얼마나 절망했을 것인가.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운명인 양 자신의 고난을 받아들였고, 당연히 주인공이 될 수 없었던 것이다.

더구나 공적 생활이 철저하게 차단된 여성, 그것도 미천한 신분이라면 어디에서 주인공으로 행세할 수 있겠는가? <홍계월전>과 같이 여성이 전쟁 영웅으로 활약하는 소설도 있지만, 그 주인공의 신분은 당연히 명문 거족의 딸이어야 했다. 천한 신분의 여인이 등장하는 작품은 그래서 대단한 능력을 가진 여성이지만 고작 남성의 입신양명을 돕는 보조적 인물로 만족하였던 것이다.

그런데 <춘향전>에서는 천한 신분의 여인이 당당하게 작품의 주인공으로 등장하였다. 기생의 딸은 기생일 뿐이었다. 관리의 수청을 드는 것이 당연한 일이었기에 어머니와 딸이 같은 관아에서 거주하는 것을 피하게 한 것이 그나마 배려한 일이었을 뿐이다. 그런데 춘향은 그런 제도의 요구를 물리치고 양반 자제와 혼인하고자 하였다. 현실적으로 이루어질 일이 아니었지만, 춘향과 같은 여성의 꿈이 이루어지는 작품도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험난한 고초를 이겨 내고 춘향은 자신의 꿈을 실현하였다. 춘향의 가당치 않은 꿈이 이루어진 것은 그러한 춘향의 상황에 기슴 아파하고 그 실현을 위해 자신의 미래를 걸었던 이몽룡이 있어 가능하였다. 그러나 이몽룡의 행동이 대단하기는 하지만, 이몽룡이 아니었다 하여도 춘향의 꿈이 사그라지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래서 이몽룡은 춘향의 성취를 돕는 보조적 인물일 뿐인 것이다.

판소리는 춘향과 같이 하찮은 존재여서 핍박을 당하는 사람들이 만들어 냈고, 그래서 자신들의 꿈을 여기에 담아 놓았다. 심청은 가난한 맹인의 딸이었다. 태어나자마자 어머니를 잃었고, 눈먼 아버지의 동냥질로 생을 연명해야 했다. 또 어린 나이에 아버지를 대신하여 밥을 빌러 다니고 샅 일을 하면서 아버지를 부양하였다. 그런 심청이 황후가 되었지만, 출신을

따지며 이를 반대한다든가 하는 이들은 전혀 나타나지 않았다. 애초부터 신분이 문제되는 작품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심청가>를 듣고 자란 사람들은 그런 세상을 꿈꾸었을 것이다. 찢어지게 가난한 흥보가 부자가 된 이야기가 <흥보가>의 내용이다. 어떻게든 흥보는 부자가 되어야 하기에 제비 다리를 고쳐 주어 부자가 되었다는 꿈과 같은 설정을 끌어들었다. 그렇게라도 가난했던 흥보는 기어코 부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다.

<수궁가>는 어떤가. 약해 빠진 토끼는 막강한 권력을 가진 용왕의 먹이가 될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도 이 작품을 향유하는 사람들은 그런 토끼를 영리한 존재, 그리고 권력을 쥐고 있는 용왕을 형편없이 미련한 존재로 설정하여 토끼를 용궁에서 빠져나오게 하였다. 본래 영웅들의 활약상을 중심으로 하여 만들어진 <삼국지연의>에서 적벽 대전 대목만을 떼어 내어 판소리화한 <적벽가>는 영웅들의 용맹을 드러내기 위하여 추풍낙엽처럼 사라져 갔던 병졸들 하나하나에 초점을 맞추어, 그들의 삶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보여 주었다. 영웅담마저도 그들의 손에 들어가면 자신들의 고달픈 삶을 반영하는 작품으로 변형되었던 것이다.

이처럼 판소리는 약자의 편에서 인간의 평등을 추구한 작품들로 이루어졌다. 기득권을 누리며 평평거린 사람들은 그런 전개가 불편했을 것이다. 그래서 그 작품 속에 절개나 효도, 그리고 우애나 충성과 같이 감히 대들지 못할 이념으로 둘러싸는 지혜를 발휘하였다. 이념을 숭상하던 사람들은 판소리가 가지고 있는 교훈적인 생각과 마주하며 판소리를 즐겼고, 또 서민들은 자신들의 꿈을 그 속에서 발견하면서 같이 어울릴 수 있었다.

### 3. 세태의 반영을 통한 사회 비판

판소리는 다분히 이상적이고 낭만적일 수밖에 없는 평등 지향의 작품만으로 이루어지지는 않았다. 현실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을 극대화하거나 풍자적인 모습으로 비틀어 드러냄으로써 세태를 관조할 수 있는 작품들도 판소리라는 바다 속에서 어울렸던 것이다. 자신들을 희화화한 작품들을 바라보며 깔깔대지만, 결국은 그런 세태를 일정한 거리에 서서 반추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을 것이다.

<변강쇠타령>은 어디에도 작은 몸 하나 붙일 수 없어 유랑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 주었다. 떠도는 사람들로서는 저녁연기 피어오르는 아늑한 집의 생활을 얼마나 회려했을 것인가. 그러나 그 어디에도 자신들을 받아 주는 곳이 없어 한 여인은 북에서 남으로, 또 한 남정네는 남에서 북으로 정처 없이 올라간다. 그런 그들이 중간 지점인 개성에서 만나 서로의 닳음을 발견하고 한 몸이 되는 것이다. 그들이 가진 것이라고는 이 세상 살아갈 수 있는 건장한 몸 하나이기에, 달랑 하나밖에 없는 서로의 기물을 타령으로 극대화하여 묘사하였다. 이것 하나 있으니 새로운 삶 살아갈 수 있겠다는 처절한 각오가 기물 타령 속에는 녹아 있다.

여보시오 저 마누라 어디로 가시오  
숫계집 같으면 편잔을 하든지 못 들은  
체 가련마는 이 자지간나희가  
홀림목 곱게 써서 삼남으로 가오  
강쇠가 연해 물어 혼자 가시오  
혼자 가오 고운 얼굴 젊은 나이  
혼자 가기 무섭겠소 내 팔자  
무상하여 남편 잃고 자식 없어  
나하고 함께 갈 사람은 그림자뿐이  
지요 어허 불쌍하오 당신은 과부시오  
나는 홀아비니 둘이 살면 어떠하오  
내가 상부살에 신물이 나서 다시  
냥군 얻자 하면 궁합 먼저 볼 터이오  
같은 성씨끼리는 인연을 이을 수 없으니  
마누라 성씨는 누구시오  
옹가요 예 나는 변서방인데  
궁합을 잘 보기로 삼남에 유명하니  
마누라는 무슨 생이오  
갑자생이오 예 나는 임술생이오  
천간으로 볼 것 같으며 갑은 양목이오

입은 양수이니 수생목이 좋고 납음으로 의논하면 입술계해대해수 갑자를  
 축해증금 금생수가 더 좋으니 아주 천생배필이오 오늘 마침 기유일로 음양  
 의 기운이 센 딱 그날이니 당일 식을 올립시다 계집이 허락 후에 청석관을  
 처가로 알고 돌이 손길 마주 잡고 바위 위에 올라가서 큰일을 치르는데  
 신랑 신부 두 연놈이 이력이 가득 찬 것이라 이런 야단 없겠구나<변강쇠가>.  
 《쉽게 풀어 쓴 판소리 열두 바탕》)

그들은 혼인을 축하해 줄 사람 하나 없어 노천에서 신방을 차리는 고  
 단한 삶이지만, 가진 몸 하나 믿고 지리산에 정착하여 새로운 희망으로  
 새날을 맞이한다. 어떻게든 살아가겠다고 허우적거리는 웅녀의 모습은  
 중세를 살아가야 했던 천민들의 궁핍한 삶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었다. 그  
 러나 이들의 평화로운 삶을 그대로 둘 세상이 아니었다. 결국 강쇠는 장승  
 동티로 어디 하나 손볼 수 없을 만큼 만신창이가 되어 처참한 죽음을 맞  
 이하는 것이다. 웅녀는 또다시 새로운 삶을 찾아 방랑의 길로 떠나갈 수  
 밖에 없었다.

<배비장전>과 <강릉매화타령>은 양반들이 벌이는 세태의 한 자락을  
 과장적으로 보여 주고 있는 작품이다. 이 작품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  
 는 인물은 기생인데, 여기에서 천민인 기생을 대하는 방식이 앞에서 언급  
 했던 작품들의 이상 지향적인 태도와는 자못 다르다. 춘향을 인간으로 보  
 고 한없는 연민의 감정으로 대했던 이몽룡과 달리 <배비장전>이나 <강릉  
 매화타령>의 인물들은 기생을 그저 말하고 생각할 줄 아는 사물로 여길  
 뿐이다. 그리고 애랑이나 매화 역시 자신을 철저하게 신분제에 예속된  
 존재로 인식하고 그에 합당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 <배비장전>  
 에서는 기생의 수청을 인정할 수 없다는 배비장을 기어코 중인환시리  
 (衆人環視裏)에 발가벗겨 곤욕을 치르게 함으로써 제도 속으로 편입시키  
 고 만다.

이 물은 찌물이라 눈에 들면 멀 것이니 감고 해자 눈은 생전 멀지라도 목숨이나 살려 주오 그럴 지경이면 눈이 멀지라도 날 원망은 마시오 하고 함정 같이 잠긴 금거북쇠를 툇 쳐 열어 놓으니 배비장이 알몸으로 쑥 나서며 그 래도 소경 될까 염려하여 두 눈을 잔뜩 감으며 이를 악물고 왈각 냅다 짚으면서 두 손을 해우적해우적 하여 갈 제 한 놈이 나서며 이리 해자 한참이 모양으로 허여 갈 제 동헌 대청에다가 대강이를 딱 부딪히니 배비장이 눈에 불이 번쩍 나서 두 눈을 뜨며 살펴보니 동헌에 목사 앉고 대청에 삼형수며 전후좌우에 기생들과 육방관속 군로배가 일시에 두 손으로 입을 막고 참는 것이 웃음이라<배비장전>, <<쉽게 풀어 쓴 판소리 열두 바탕>>)

<강릉매화타령>에서도 그런 수모를 당해도 괜찮다고 여기는 양반의 후예를 발가벗겨 사람들 사이를 돌아다니게 하는 엽기적인 모습이 연출된다. 기생은 그런 행위를 연출하는 도구로서만 기능할 뿐, 전혀 인격을 갖춘 존재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왈짜타령>의 소설 정작본에서는 그나마 대상이 되는 무속의 신분이 왈짜이고, 기생인 의양에 의해 탕진한 재산을 다시 찾았기 때문에 기생이 인격체로 대접을 받고는 있다. 그러나 신분 차별이나 강자와 약자로 굳어진 체제에 대한 비판은 찾아보기 어렵다. 이러한 작품들은 기생을 풍류를 즐기는 완상물로 여기고, 권력을 누리는 자들이 기생들과 함께 한바탕 놀아 보는 모습을 풍자적으로 드러낸다고 할 수 있다.

#### 4. 펄떡펄떡 살아 있는 말의 잔치

판소리 연창자들은 본래가 뛰어난 이야기꾼들이다. 평범한 말인데도 이들의 입에서 나오면 마술의 힘을 빌린 것처럼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변화되었다. 거기에 노래라는 무기까지 가미되면서 그야말로 뻥한 이야기인

데도 관객들은 작품 세계 속에 폭 빠져들었던 것이다. 이런 말맛은 판소리 사설 어느 곳에서나 쉽게 발견할 수 있다. 다음의 사설은 춘향을 보고 온 뒤에 내보이는 이몽룡의 심사를 표현한 것이다. 장소의 이동도 없고 시간의 변동도 없는데, 춘향의 생각만이 가득 채워져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도령의 모습을 여실하게 그리고 있다.

도련님 그시부터 글짓기 생각 없고 구경도 뜻이 없어 무엇을 잃은 득이 섭섭히 돌아와서 동원에 얼핏 다녀 내아에 보인 후에 다시 책실로 들어와 옷을 모두 벗어 놓고 금침에 누웠는데 몸은 광한루에 누운 듯하고 눈은 춘향을 표연히 대하는 듯 눈 감으면 곁에 앉고 눈 뜨면 간 곳 없네 사또도 춘향이요 방자도 춘향이요 모두 춘향으로 뵈네 깊은 상사 병이 들어 어린 창자 끊어지니 못 살것네 춘향을 보고 싶어 보고지고를 찾는데 보고지고 보고지고 보고지고 가고지고 가고지고 가고지고 춘향 집을 가고지고 어떻게 소리를 질러 났던지 사또가 공사에 피곤하였다 퇴침을 비고 상방청에서 낮잠을 자고 있는데 느닷없는 소리를 뻑 지르는 바람에 사또 벌떡 일어나 헛디터 놓은 것이 상방 뜰 아래로 곧 호박 떨어지듯 탁 떨어졌것다 이리 오나라 통인들이 급히 나와 사또를 부축하여 상방청에다 올려놓니 사또 대노하여 네 여봐라 어떤 놈이 책실에서 생침을 맞느냐 이 외마디 소리가 웬 소리냐 사실을 아뢰여라 통인이 나와 도련님 뭘 소리를 질러서가고 사또께서 놀라셔서 지금 야단났습니다 뭘 소리를 질렀는지 사실을 아뢰랍니다 어찌하면 좋습니까 놀랐으면 내 탓이라네 왜 백성들이 원망하는 소리는 못 들어도 그런 소리는 잘 들으신다더냐 다른 집 노인네들은 늙으면 귀두 먹두만 우리집 노인네는 점점 귀나 밝아 이진 다 재담이요 아버님께서 놀라셨다니 하정에 황송코나 네 여봐라 이런 때는 거짓말이 당재니라 도련님이 논어에 차호라 몽불견주몽이라는 글을 읽다가 나도 주몽을 보고지고라고 소리를 질렀다고 여쭙어라 고대로 고해 놓은 것이 사또 속 모르고 좋아라고 허허 용생용 봉생봉이로구나 상방 축 두 자루를 내여주며 네 여봐라 도련님이 이 초가 다 닳도록 책실에서 글소리가 나라고 여쭙어라(박동진, <춘향가>)

더구나 이런 모습은 어떤가. <적벽가>에서 한 병사는 자신이 두고 온 까치 새끼를 못 잊어 서럽다 하니 모든 병사들이 실없는 놈이라고 조롱한다. 그러나 다른 사람의 눈에는 하찮은 것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그 사람에게는 무엇보다 서러운 것이 될 수도 있다. 이런 개인의 생각들을 용납하지 않는 것이 바로 국가나 집단이 내세우는 이념일 것이다. 그래서 개인의 작은 생각들이 존중되는 사회야말로 진정 서민들이 희구하는 모습일 것이다. 그런 개인적 차원을 송두리째 내던지고 끌려온 전쟁에서 그들은 속절없이 죽어 갈 수밖에 없다. 이 술한 죽음을 표현하기 위하여 판소리는 죽음의 다양한 모습들을 두고두고 헤아리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말의 성찬 속에 전쟁은 개인의 존엄성을 용납하지 않는 것이고, 그래서 전쟁을 일으키는 인물에 대한 강한 거부감이 폭진하게 그려지고 있는 것이다.

옆에 무슨 울음소리 쇠끝같이 되게 나도 사람은 아니 뵈어 좌중이 의심하 되어 어인 재변인고 한참을 찾아보니 병거지가 울거든 좌중이 공론하여 이계 큰 변괴로다 저 병거지 집어다가 강물에 내버려라 한 군사가 집어 드니 더럭더럭 더 울면서 이놈들아 내 목는다 갖혀놓고 자세 보니 선초만한 사람 하나 병치 끈에 달렸거든 좌중이 물어 네가 무엇이냐 내가 전부 선봉 장합의 화병이다 좌중이 대소하여 불알만한 그 형상에 말소리는 똑똑하네 쥐 창만한 네 뱃속에 무슨 설움 들었느냐 내 설움은 참 설움 말하여라 들어보자 우리 집에 있을 적에 까치 새끼 하나 잡아 풀아이에 공작미 받침대에 앉혀 들고 줄밥을 먹였더니 급히 잡혀 오느라고 못 가지고 그져 와서 밤낮으로 생각터니 아까 울고 가는 까치 정녕한 내 까치가 날 찾아왔는 것을, 겸양한 승상님이 날더러 문도 앓고 글만 지어 읊으시니 절통하여 살겠는가 (중략) 이 말이 지든 말든 시위 소리 얼른 나며 피루루 오는 살에 문병이 팔을 맞아 배 안에 자빠지니 20척 날랜 화선 일시에 불을 질러 조조 수채 달려들 제 바람은 불을 쫓고 불은 바람 쫓아 화열풍맹 급한 형세 조조의 수만 전선 연환이 굳었으니 저 어디로 도망하리 좌편에는

한당 장흠 우편에는 주태 진무 한가운데 오는 것은 주유 정보 서성 정봉  
 사면으로 달려들 제 텡텡 연주포 띵 띵 천아성 등등 뇌고 소리 쨍쨍 징  
 소리 번듯번듯 장창 환도 휘딱휘딱 쇠도리께 핑핑 우는 살 소리 훑훑 붙는  
 불 소리 우주가 바뀌고 벽력이 진동하니 조조의 백만 대병 각색으로 다  
 죽는다 불 속에 타서 죽고 물속에 빠져 죽고 총 맞아 죽고 살 맞아 죽고  
 갈에 죽고 창에 죽고 밧혀 죽고 눌러 죽고 엎어져 죽고 자빠져 죽고 기막혀  
 죽고 숨 막혀 죽고 창 터져 죽고 등 터져 죽고 팔 부러져 죽고 다리 부러져  
 죽고 피 토하여 죽고 똥 싸고 죽고 웃고 죽고 뛰다 죽고 소리 지르다 죽고  
 달아나다 죽고 앉아 죽고 서서 죽고 가다 죽고 오다 죽고 장담하다 죽고  
 부기 쓰다 죽고 이 갈며 죽고 주먹 쥐고 죽고 죽어 보느라 죽고 재담으로  
 죽고 하 서러워 죽고 동무 따라 죽고 수없이 죽은 것이 강물이 피가 되어  
 적벽강이 적수강 군장복색 다 타진다(신재효, <적벽가>)

다음의 사설은 홍보가 부자가 된 뒤에 놀보가 찾아와 행패를 부리는  
 대목이다. 연창자는 음식 차리는 모습을 그려 나가는데, 마치 현장에서  
 음식을 만드는 것처럼 피식피식 소리가 나고 냄새까지 구수하게 난다. 여  
 기에서도 또 놀보의 심술은 비껴가지 않는다.

시숙께 인사를 드리면 그대로 받는 것이 아니라 야 홍보야 제수씨가 쫓겨  
 날 때 보고 지금 보니 미꾸라지가 용 되었구나 홍보 마누라 들은 척도 아니  
 히고 안으로 들어가 음식을 채리는데 음식을 채리는데 안성유기 통영칠환  
 천은 수저 구리 저 십리 서리수 별이듯 주루루루 벌여놓고 꽃 그랬다  
 오죽판 대보양각 당화기 열기설기 송편 네 귀 번 듯 정절편 주루룩 엮어  
 삼피떡과 평과 진청 생청 놓고 조락 산적 무침 쳐 양회 간 천엽 콩팥 양편  
 에다 벌여놓고 청단 수단 잣배기며 인삼채 도라지채 낙지 연포 콩기름에  
 가진 양념 모이놓고 산채 고사리 수근 미나리 녹두채 맛난 장국 주루루루  
 루 들어 붓고 청동 화로 백탄 숯 부채질 활활 계란을 툯툯 깨어 옷딱지를  
 띵고 길게 느리워라 꼬꼬 울었다 영계찜 오도독 포도독 메초리탕 손 뜨긴  
 디 쇠 저 말고 나무 저를 드러라 고기 한 점을 텡텡 집어 맛난 기름에